

서울史料叢書 第十

國譯 荷齋日記 (七)

1902.8.23~1905.3.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해제(解題)

- 1902년 8월 23일~1905년 3월 2일의 일기 내용을 중심으로 -

I. 책의 편철과 보존상태

이번에 발간하는 하재일기 제7권은 규장각에 소장된 하재일기 전 9책 가운데 제8책(고 4655-44-8)에 해당되는 부분을 번역·탈초하여 펴낸 책이다.

번역대상 원본 자료의 분량은 163매이고, 1902년 3월 23일부터 1905년 3월 2일까지 약 3년간의 일기이다.

원본 자료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종이 슬어 훼손이 심한 표지를 제외하면 글자를 읽고 해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본 일기의 편철은 일기를 쓴 지규식(池圭植)이 직접 한 것으로, 처음 시작할 때 ‘8월 23일(八月二十三日)’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새로 시작함을 알려주고 있다. 보통의 경우, ‘월’ 표시는 매월 첫날에만 하고 다른 날에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일기에는 지규식의 일상적 생활사와 번자회사 운영 변화, 어지러운 국가·사회사에 대한 인식, 분원일대 향촌사회 모습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II. 주요 내용

1. 번자회사 운영 변화와 은곡점 개설

이시기 일기에는 번자회사(燐磁會社)의 경영방식 변화와 사원 구성 및 수입금 분배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

번자회사의 운영진은 사장과 사원(社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장은 관료 자본가인 김종한(金宗漢)이고, 사원은 사장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이었다. 이때 사원은 회사에 고용된 임노동자가 아니라, 일정 자본금을 내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운영진의 일원이었다.

사원은 서울사원과 분원사원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서울사원은 회사의 전체 경영과 왕실 소용 자기의 수주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사장을 비롯하여 한용식(韓龍植)·안중기(安重基)·이영균(李永均)으로 추측된다. 분원사원은 현장에서 그릇을 생산·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지규식과 함경빈(咸敬賓), 이원유(李元裕), 함동희(咸東羲), 변주헌(卞柱憲)으로 짐작된다.

이시기 번자회사의 운영방식은 이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본사에서 분원의 필요자금을 지원하고 판매에도 관여하고 있었으나, 이시기에는 회사체제 아래 분원사원들이 각각의 가마에서 그릇을 생산·판매하고, 개인별로 자금을 융통하여 해결하고 있었다. 지규식의 경우에는 전 의관(全議官)의 자금을 동원하고 있었다.

회사는 분원사원들로부터 가마세 등 시설 이용료를 받고, 회사에서 중개한 그릇 대금의 1/10세를 받았다. 1903년 2월에 지규식은 임인년(壬寅年, 1902) 분을 본사와 결산하였는데, 이때 본사에 낸 세금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마세[釜稅] : 1/10세, 매 8칸에 2,360냥
- 각령세(閣令稅) : 150냥
- 등막세(登幕稅) : 20냥

- 용간세(春間稅) : 10냥
- 흙창고세[土庫稅] : 10냥

이처럼 분원사원인 지규식은 회사의 시설인 가마와 각령·등막·용간·흙창고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총 2,550냥의 세금을 내고 있었다. 한편 지규식은 국토(麴土)와 가마 축조비로 584냥 8전 5푼을 돌려받았으며, 그밖에도 분원의 가마 쌓는 품삯, 도랑 친 품삯, 이영 값 등은 회사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를 보면, 이시기 번자회사는 분원의 자기 제조와 판매를 직영한 것이 아니라, 분원사원들에게 가마와 창고 등 각종 시설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으며, 시설의 개보수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3년 12월에는 제기(祭器)를 납품하고 정부에서 15,000냥을 받았는데, 안정기(安鼎基)가 1/10세를 요구하였으므로 분원 사원 5명이 모여 1인당 300냥씩 추렴하여 1,500냥을 채워주기로 결정하였다.

시설 임대료 등으로 들어온 수입금은 사원 9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였다. 1904년 4월의 회사 수입금 분배를 보면, 총 수입금 28,334냥 3전을 사원 9명에게 3,148냥 2전씩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이때 사장이 자신의 몫 3,148냥 2전을 도로 내놓자, 나머지 사원 8명이 393냥 5전씩 나누어 가졌다. 따라서 사원 8명은 각각 3,541냥 7전씩 가져가게 되었다.

1905년 2월 번자회사는 회사의 시설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였다. 그 내용은 각항 납세는 이전보다 감절을 받고, 가마당 200냥씩의 가마세를 거두도록 하고, 함경빈과 이원유를 간무원(幹務員) 차출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영체제 속에서 지규식은 1903년 2월에 토지세를 바치고

회사 땅에 새로 가마를 설치하려 했으나, 본사에서 반대하였으므로 그만두었다. 대신 그는 1903년 3월에 응봉(鷹峰) 아래 은곡(銀谷)의 목화밭을 750냥에 구입하고, 번조(燔造) 가마를 축조하였다. 그리고 5월부터 은곡점에서 자기를 구워내기 시작하였으며, 5월 23일에는 새 가마에서 꺼낸 그릇 4천냥 어치를 팔았다. 은곡점의 규모는 결(結) 6북(卜), 초가 6칸이었다.

은곡점은 서울 사동(社洞)의 전 의관(全議官)의 자금을 끌어들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3년 10월에 전 의관이 은곡점 그릇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물력을 대어 경영할 뜻이 없음을 통보해 왔다. 이에 지규식은 중도에 폐지하게 된 은곡점의 현실을 한탄하였으나, 이후에도 은곡점의 그릇 제조와 판매는 계속되었다.

1903년 12월 6일 지규식은 “전읍(奠邑)이 소재(小才)와 머리를 맞대고 가까이 앉아 상의하여 사창(砂廠)을 빼앗아 가려고 도모한다”고 한탄하였다. 이에 그는 본주(本主)에게 자퇴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은곡점에서 사용하는 도장[信章]을 올려 보냈다. 이로써 그는 은곡점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은곡점 일에 관여하고 있었다.

지규식은 은곡점 운영에서는 손을 떼었지만, 그는 번자회사 사원으로서 여전히 자기의 제조와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시기에 이르러 번자회사는 채요(彩窯)를 만들고 채색 도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02년 9월에 ‘서양 채색 물감 14종’을 가져왔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선금 150원을 주고 일본인 도공(陶工) 암주(庵住)를 데려와 채색 도자기를 빚었다. 채색도자기 제조는 처음에는 의토(衣土)와 약품, 화력과 시간 조정 등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거듭했지만, 점차 보완을 거듭하여 이후 본격적으로 채색도자기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다.

고종 40년(1903) 9월에는 황토현(黃土峴, 현 광화문사거리)에 어비각(御碑閣)을 덮을 청색 기와를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이에 사토(沙土)를 굴취하여 기와를 만들었다. 이때 어비각은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高宗卽位四十年稱慶紀念碑)가 거의 확실히 된다.

1904년 12월에는 분원을 방문한 일본 사기업자(砂器業者) 전촌구평(田村久平)이 소문과 달리 제조 기술이 탄식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하면서 “정묘하게 제조하는 기법”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지규식은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이시기 분원에서는 국장도감(國葬都監)과 산릉도감(山陵都監)에 사용되는 지석(誌石)과 명기(明器)·제기(祭器) 등 각종 그릇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1904년 11월에는 번자회사 사원인 변주헌(卞柱憲)이 왕실에서 요청한 제기받기를 숨겼다가 들통난 일이 있었다. 여전히 시장 상인들이 그릇을 가져가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유명인사와 안면 있는 사람들이 지석과 그릇 등을 주문하여 사가고 있었다.

품질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한 도공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지규식 또한 솜씨 좋은 도공을 구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1903년 2월에는 황해도 해주 조기장(造器匠)으로 여주 오금점에 있는 신성국(申聖國)을 데려오기 위해 분원 8리의 가옥을 350냥에 구입하여 그에게 제공하였다.

1903년 4월에는 화청(畵靑)을 하는 이상우(李尙宇)를 충주에서 데려오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노자 200냥과 품삯 50냥을 주어 보냈다. 1903년 5월에는 김화(金化) 여과점(餘坡店) 조기장 임완서(林完西)를 데려오기 위해 궁내부 훈령을 얻었으나, 도중에 중지하였다.

이시기 분원에서 사용한 도토(陶土)는 분원에서 멀지 않은 여주·과천 및 분원 근방에서 조달하고 있었는데, 주로 여주의 백토·수토·익토(益土), 과천토, 용두리 수토, 분원 뒷산의 백토 등을 사용

하였다.

2. 당대의 시국과 사회적 풍경

1) 급격한 정세 변화와 시국 인식

이시기는 황제권 강화와 식산흥업정책이 추진되고, 대외적으로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한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되던 기간이었다. 일기에는 당시 정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 민간의 시국이해를 엿볼 수 있다.

1904년 10월에 경기도 관찰부는 민간에 뽕나무를 나누어 주었는데, ‘농토가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3년 뒤 1주에 엽전 1전 5푼씩 수납하도록 하였다. 분원에는 뽕나무 400주가 배당되었으며, 지규식은 11주를 배정받아 집 뒤의 채소밭에 심었다.

지규식은 제국신문(帝國新聞)과 한성신문(漢城新聞)을 통해 대내외 시국을 파악하고 있었다. 신문은 주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10여장씩 가지고 왔는데, 지규식은 신문을 보고 어지러운 시국과 국가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1904년 9월에는 일본사령부에서 제국신문 발행을 금지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 발행되었으므로 정간 처분된 사안으로 짐작된다.

1904년 8월에는 동학이 다시 일어나 민심이 흉흉하다는 소문과 고종이 일진회(一進會)를 금하고, 서울에 머물고 있던 일진회 회원인 동학교도들을 체포하여 도성 밖으로 쫓아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일진회와 공진회(共進會) 두목을 경무청에서 체포하고 회민(會民)들을 도성 밖으로 축출했다고 한다.

러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4년 1월에는 일본군 2만 명이 서울에 들어온 사실과 러시아와 일본이 교전(交戰)한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1904년 2월에는 일본 총리대신 이등박문(伊藤博文)의 서울 방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04년 12월에는 러시아군의 항복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인과 일진회원들이 북치고 춤추며 밤새 떠들었으며, 다음 날에는 몇 만 명인지 알 수 없는 일진회원들이 서울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1905년 1월에는 일진회 회원이 분원 아래에 와서 잡세 혁파하는 광고문과 포고문을 돌아가며 보도록 하였다. 이시기 일진회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1904년 7월에는 일제가 철도 건설에 필요한 노동자[役夫]를 요청한 일로, 양근군에서 역부 모집에 대한 전령을 보냈다. 이에 분원에서는 동회(洞會)를 소집하여 자원자를 구하였으나,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후환이 두려웠으므로, 다시 동회를 열어 역부 1명을 돈을 주고 사서 보내기로 결정하고, 매 호당 5냥씩 걷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에 인부 모집 일을 중지하라는 전령이 도착하여 안도하였다.

1904년 8월에는 여주에서 의병을 공모한다는 사통(私通)이 ‘대장 김’의 이름으로 전달되었다.

1903년 11월에는 왕실의 홍 대비(洪大妃)가 승하한 사실을 적어 놓았는데, 이때 홍 대비는 헌종의 계비(繼妃)인 명헌태후(明憲太后) 효정왕후(孝定王后)를 가리킨다. 1904년 1월에는 명헌태후의 인산(因山) 제례를 지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다.

1904년 9월 28일(양력 1904. 11. 5)에는 황태자비의 별세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황태자비 민씨의 사망일자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때 황태자비는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민씨로, 민태호(閔台鎬)의 딸이며 1882년 세자빈으로 책봉되어 안동별궁에서 세자와 가례를 올렸던 인물이다.

그는 위태로운 시국 현실을 매우 걱정하였으며, 때로는 밤이 깊도록 조선과 세계의 현실을 이야기하였고, 치국(治國)과 관리들을 권면하는 내용의 시를 짓기도 했다.

2) 자살과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상

1902년 8월에는 서울에 괴질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서울에 갔던 분원 사람들이 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이에 분원 7리에서는 괴질의 유행을 염려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1903년 2월에는 의복제도가 변경되어 모두 검은 두루마기를 입으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에 상경하는 사람들은 흰 옷 대신 의복을 고쳐 입기도 했다.

이시기 일기에는 자살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여성들의 자살이 많았다. 1904년 3월에는 지규식 본인의 시집간 딸이 독약을 먹고 죽었다. 1904년 5월에는 회사 동료인 변주헌(卞柱憲) 부인이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금시현(琴詩絃) 딸이 독약을 마셔 죽었고, 같은 해 9월에는 동네의 하인 동례(洞隸)가 양잿물을 마시고 죽었다.

1905년 1월에는 무수동의 이씨 후처가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그런데 그녀의 친족들이 무수동으로 몰려와 관(棺)을 부수고 난리를 치면서 시신을 염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웃 사람들이 타일러 장사를 지냈다. 이씨 후처가 죽은 사연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자살로 몰아간 부당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905년 1월에는 분원 8리에 사는 이윤경(李允京) 며느리가 시부모의 학대와 구타를 견디지 못하여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그러자 친정 일가들이 옥사(獄事)를 제기하려 하였다. 이에 분원의 이웃들이

그녀의 친정 쪽을 설득하여 해결을 보았다. 그러나 며느리를 학대한 이윤경의 죄는 묵과할 수 없어 장차 집을 헐고 방외로 축출하려 하자, 이윤경은 가족을 거느리고 야반도주(夜半逃走)하였다.

이시기 일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간음 등의 사건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1903년 9월에는 안석윤(安石允)과 박경선(朴京先)의 자부가 통정해왔던 사실이 그녀의 남편에게 발각되었다.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안석윤에게 “이 여자를 내가 스스로 데려가고 돈 6천냥을 가져오라”고 하고, 즉석에서 치마에 수표를 쓰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안씨에게 맡기고 돈만 요구하였다. 이후 그녀의 남편이 안석윤 집에 도끼를 들고 들어가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다. 이를 두고 지규식은 “음부(淫婦)를 시켜 남의 자제를 유혹하게 하여 억지로 돈을 요구하고 도리어 함부로 폐약한 짓”이라고 하였다.

1905년 1월에는 전년(前年)에 변관호(卞觀浩)가 이천출(李千出) 집에 들어가 음란한 짓을 행하려다 쫓겨난 일을 둘러싸고 변관호와 이천출이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다.

1905년 3월에는 변보학 등이 밤에 이웃집 부녀자를 강제로 폭행하려 했다. 그 남편이 동정(洞庭)에 호소하여 범인 두 사람을 잡아 가두었는데,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집을 헐고 내쫓는 조치를 취하였다.

1905년 1월에는 충주에 사는 주(朱)씨가 7세 딸을 데리고 떠돌아다니다가 분원에 이르렀는데, 술집을 하는 벽운당(碧雲堂)이 자식처럼 돌보아 키우겠다고 여아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그 여아를 장차 원점남(元占男)의 배필로 삼으려는 계획이 있다 하였다.

부채를 둘러싼 소송 등도 기록되어 있다. 1904년 11월에는 주점을 하는 운루(雲樓)가 광복리 조덕현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장(訴狀)을 냈는데, 본전 250냥에 이자 50냥을 합하여 300냥을 받는 것

하재일기

으로 타협하고, 100냥을 순교(巡校)에게 지급하였다. 1902년 11월에는 지규식의 큰 아들이 부채로 관청에 잡혀간 후 본전만 갚게 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3) 사채 이자와 물가

이시기 지규식은 자금이 곤궁하여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전 의관(全議官)·하 찰방(河察訪) 등에게 수시로 1만냥·5천냥 등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때로는 발문서 등을 저장 잡히고 돈을 빌렸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보면, 1904년 4월에는 5천냥 빚을 3푼 5리 이자로 빌렸고, 1905년 1월에도 3푼 5리의 이자로 1만냥을 빌렸다. 이때 이율은 1개월을 단위로 한 것이다.

1904년 8월에는 장변(場邊) 2푼으로 1천냥의 돈을 빌렸는데, 이는 1달 12푼에 달하는 고금리 빚으로, 그야말로 살인적 고리대금이라 하겠다.

1904년에는 광고 안증기에게 1천냥을 맡기고 받은 봉류표(捧留票)를 잃어버렸는데, 표를 주운 어떤 사람이 현금으로 찾아가 버린 일이 있었다.

당시 물가를 보면, 흥년이 든 1902년 9월에는 쌀 1말 값이 무려 220냥에 달했으나, 1904년에는 160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이전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었다. 배추는 1포기에 1냥을 조금 넘고 있었고, 무는 개당 1냥에 못 미치고 있었다. 서울과 분원 일대의 물가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서울·분원 일대의 물가 동향(1902. 윤8. 23~1905. 3. 2)

품 목		가 격	연월일
식 품 류	쌀	1말→220냥	1902-0909
		8석→4,160냥(1석→520냥)	1903-0613
		3말→480냥(1말→160냥)	1904-0819
	보리 종자	3말→30냥(1말→10냥)	1903-0218
	배추	100포기→125냥 115포기→143냥 7전 5푼 95포기→118냥 7전 5푼	1902-1009
		무	120개→80냥
	쌀새우 [白蝦]	2동이→270냥	1902-0826
복 식 류	무명	2필→132냥	1903-0120
	왜포(倭木)	1필→330냥	1903-0924
기 타	백지	1축→39냥	1903-0120
	안경	1개→30냥	1904-0806
	배[船]	1척→2,200냥	1905-0126
	숙지황	1봉지→12냥	1902-0914
임 금	말세(馬稅)	1필→30냥	1904-1208
	공전(工錢)	진신[泥靱] 수선→12냥 5전	1902-0909

3. 동회(洞會) 운영과 일상 풍경

1) 분원 일대 향촌 질서와 동회 운영

경기도 양근군 남종면 분원리로 편제되어 있는 분원 일대는 1~8리까지 나뉘어 있었으며, 대동회(大洞會)와 이회(里會) 등의 조직을 두고 마을 일을 처리하였다. 동회는 동네 전체의 공적인 일과 주민 간의 분쟁을 논의하여 처리하였으며, 관청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해결하였다. 그러나 동임(洞任)은 관청의 추궁과 주민의 비난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말지 않으려 하였다.

1903년 1월에는 동회를 열어 동임(洞任) 교체 건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8리에서 협의하여 함치구(咸致九)를 후보자로 결정했는데, 함치구가 온갖 핑계를 대고 말지 않으려 하였다.

1903년 12월에는 동회를 개최하여 동장(洞長)에 안정기(安鼎基), 상유사(上有司)에 이성도(李成道)를 선출하였는데, 안정기가 교체를 요구하여 1904년 1월 4일 다시 동회를 열어 함동회(咸東羲)를 동장, 김영국(金永國)을 상유사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튿날 다시 동회를 열어 안정기에게 우전(牛廛) 한 자리를 얻어주어 영구히 동임(洞任)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입장(入場) 경비 4천여 냥을 상인에게 거두어 주기로 했다. 이를 보면 동임(洞任)을 수행하는 대가로 시장 점포에 대한 세입을 보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

1904년 2월에는 분원리 결전(結錢) 미납의 일로 상유사 김영국이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김영국은 목숨을 보전하려면 1천냥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하였으므로, 8리의 좌상(座上)들이 논의하여 1천냥을 마련하고, 양근군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 ‘벼물 1천 냥을 바칠 것이니 반드시 석방되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안씨가 들어간 뒤

하루 만에 김영국이 풀려나왔다.

상유사 김영국이 풀려난 후, 동민들은 다시 동회를 열어 결전 1,500냥과 잡기꾼 관련 경비 1,700여냥의 경비 문제를 논의하였다. 결전은 각자 거두어들이고, 잡기꾼 경비는 당사자인 이준철(李俊哲)·이철근(李哲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가산을 다 소모하더라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전과 잡기 문제로 관가의 압력이 심해지자, 주민들은 사유를 갖추어 내부(內部)에 등소(等訴)하자는 의논이 비등하였으나, 일단 양근 관아에 논보(論報)한 다음 경사(京司)에 호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근 군수는 분원의 논보 내용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으며, 여전히 잡기꾼 체포하는 일로 온 동네가 시끄럽고 피신하는 자가 많아 원성이 자자했다.

1904년 10월에는 금추봉(琴秋鳳)이 관례(官隸)와 다툰 일로 체포되었다가 도망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관에서 동임을 체포하려 하여 해당 동임이 피신하였다. 이에 다른 동임이 동보(洞報)를 작성해 가자, 관청에서는 이들 두 소임을 체포·수감하여 버렸다.

1904년 12월에는 양근군에서 “원중(院中) 잡기하는 사람을 오가작통(五家作統)하여 특별 엄칙하라”는 분부가 내려왔으며, 3리 주민들은 잡기의 거점인 천세영(千世榮) 집으로 몰려가 엄중히 타이르고 돌아오기도 했다.

1905년 1월에는 일진회에서 인구조사를 요구하였으며, 일진회원들이 우천장시에 와서 각항 세를 시행하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분원 일대는 매년 고청신사(高請神祀)를 지냈는데, 1904년 3월에는 경기도 관찰부에서 치성만 드리고 무녀(巫女)와 고인(鼓人)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소장(訴狀)을 제출하여 전례대로 시행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3월 22일에는 온 종일 무녀와 고인이 굿하였다. 그

런데 병정 수십명이 싸움을 벌여 사람들이 일제히 피신하고, 제사를 일찍 파하였다.

분원 동회에서는 폭력이나 술주정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동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벌칙을 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03년 5월에는 이천출(李天出)이 술주정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망측스럽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서 가시나무를 베어다 이가의 대문을 막았다. 1905년 1월에는 술주정한 함수근(咸壽根)을 동회에서 잡아다 태형(笞刑) 20대를 쳐서 징계하였다. 1905년 2월에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본군에서 파견된 우세(牛稅) 파원(派員)을 모욕한 임경수(林京守)를 동정(洞庭)에 잡아다 엄중 치죄하였다.

1905년 1월에는 이천출 집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하려다 쫓겨난 변관호가 도망갔다가 돌아오자, 이천출이 변관호를 때려죽인다고 공언하고 다녔다. 이에 사람들이 변관호를 동정에 잡아가 곤장 100대를 때렸다. 그런데 구경하던 이천출이 갑자기 몽둥이로 변관호를 마구 때렸으므로, 다시 이천출을 잡아다 곤장 30대를 치고, 서로 화해시키면서 다시는 싸우지 말라고 타일러 석방하였다.

1902년 12월에는 경기도 관찰부에서 우천장시를 영친왕궁에 부속시키고 안정기를 궁감(宮監)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전령을 분원에 보냈다. 이 기회를 틈타 분원에서는 우천장시를 분원으로 이설하기 위해 영친왕궁에 손을 썼다. 이에 1903년 영친왕궁에서 우천장시를 ‘분원 구기(舊基)’로 이설하라는 전령을 보냈으나, 1904년 2월에 다시 장시를 우천으로 보내라는 전령이 내려왔다. 우천장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혀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의 시련과 일상

이시기 지규식은 사랑하는 딸과 시작(詩作) 동지인 유초사(柳蕉史)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 또한 자식들의 탈선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자신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위장병 등으로 고생하였다.

지규식의 딸은 광주(廣州) 남한산성 부근 석(石)씨 집으로 시집을 갔다. 시가(媿家)는 꽤 부유한 집안이었으나, 사위는 술버릇이 좋지 않아 딸을 힘들게 했다. 1904년 3월에 딸이 잿물[灰水]을 마시고 위독한 지경에 처하였다. 이에 해독에 좋다는 거위 알을 급히 구하여 보내고, 다시 오리피[鴨血]가 좋다고 하여 오리를 구하여 보냈으나, 8일만에 죽었다. 그는 딸의 죽음을 매우 애통해 하였으며, ‘원통하고 후회스럽다’고 하였다. 그의 딸은 자살한 것으로 짐작되나,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넷째 아들 영지(榮智)는 1903년 4월에 돈 300냥을 갖고 충청도 직산(稷山)으로 도망갔다가 둘째 아들 영의(榮義)에게 이끌려 돌아왔다. 1904년 3월 영지는 장사하기 위해 소금 한 배를 싣고 충주에 가기도 했다. 1905년 2월에 양잿물[洋灰水]을 잘못 마시고 위독한 상황에 처하였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 서울에서 해독약을 구해 와서 먹였으나 병세가 회복되지 않았다. 1905년 3월 1일에는 서울의 병원으로 보내어 치료하도록 조치하였다.

1903년 7월에는 쌍둥이를 임신하여 부종(浮腫) 등 임신중독증으로 힘들어했던 셋째 며느리가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첫째 아이는 무사했으나 둘째 아이는 사산되었다. 이때 며느리는 전해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유복자(遺腹子)를 낳은 것이다. 사망 당시 남편의 나이가 24살이었으니, 며느리는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어 시가에서 유복자를 데리고 사는 신세가 되었다.

큰 아들 영인(榮仁)은 여전히 말썽을 피우고 있었다. 1902년 11월에는 이웃 정원경(鄭元京) 처에게 1,500냥을 빌리고 갚지 않아 관청의 순교와 사령들이 나와 영인을 체포하여 갔다. 이에 지규식은 700냥의 돈과 어음 1,300냥표를 써 주어 영인을 빼내고, 이후 본전 1,500냥만 갚게 해 달라고 소장(訴狀)을 내었다.

상처(喪妻)한 둘째 아들 영의(榮義)는 1904년 10월에 다시 정식 혼인을 치렀다. 1902년 4월에 부인이 죽었으니, 2년 6개월 만에 다시 결혼을 한 것이다.

1903년 11월에는 동생 연식의 딸이 홍역으로 죽었고, 1904년 1월에는 가동(家僮) 씨복(氏福)이 행패를 부려 날그릇을 부수기도 했다.

1903년 4월에는 함께 시를 짓고 뜻을 같이한 동지이자 친구인 유초사(柳蕉史)를 잃었다. 상심이 컸던 그는 술과 과일을 마련하고 제문(祭文)과 만사(輓詞)를 지어 묘에서 통곡하기도 했다. 그는 초사의 상에 50냥을 부조하였다.

지규식은 스승과 같은 조 고양(趙高陽) 호석공(湖石公) 회갑에 갈비 1짝을 선물로 보냈으며, 지인들의 혼사에 20냥 정도의 부조를 하고 있었다. 10여년 전에는 10냥 정도를 부조하였으나, 이시기에는 대개 돈 20냥이나 그에 상당하는 물품을 부조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행사에는 50냥을 부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각종 약방문과 처방전 등 수많은 일상사적 생애사적 내용들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일기에는 번자회사의 운영 변화와 당대의 시국 및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고, 딸과 자식의 탈선으로 고통 받는 부모의 입장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잘 드러나 있다.

박 은 숙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범례(凡例)

- 이 책의 국역 대본인 하재일기(荷齋日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도서번호는 ‘고 4655-44’이다.
- 이 책은 규장각 소장 하재일기 전 9책 가운데, 제8책(1902. 8. 23 ~1905. 3. 2)을 번역·탈초하여 원문과 함께 수록하였다.
- 이 책은 번역문·탈초문·원문의 순서로 편집하였다. 이 가운데 번역문과 탈초문의 쪽수는 연속으로 하였고, 원문의 쪽수는 별도로 매겼다.
- 번역은 원래의 뜻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직역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의역(意譯)을 곁들였다.
- 번역문 가운데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관직명과 전문용어 등은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역사용어와 고어(古語) 등은 각주를 달아 해설하였다.
- 탈초문 가운데 원문에서 누락된 글자는 < >안에 넣어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알아볼 수 없는 글자는 ‘□’로 표기하였다.
- 원문은 규장각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제공한 것을 영인하였다.
- 원문의 잘못된 글자는 탈초문에서 바로잡았으며, 원래 글자는 그대로 두고 [] 안에 바로잡은 글자를 넣어 대비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원문의 원래 규격은 가로와 세로가 20.5×28.5cm이나, 본 책의 판형에 맞추어 축소하여 실었다.

목차(目次)

해제(解題)	3
범례(凡例)	19

국역

임인(1902)	8월	25
	9월	27
	10월	33
	11월	39
	12월	44
계묘(1903)	1월	51
	2월	56
	3월	61
	4월	65
	5월	70
윤5월		75
	6월	78
	7월	83
	8월	87
	9월	91
	10월	95
	11월	99
	12월	102
갑진(1904)	1월	108

	2월	113
	3월	118
	4월	124
	5월	129
	6월	133
	7월	135
	8월	139
	9월	143
	10월	146
	11월	151
	12월	155
을사(1905)	1월	162
	2월	169
	3월	174

탈 초

임인(1902)	179
계묘(1903)	195
갑진(1904)	235
을사(1905)	272

임인(壬寅) 8월

계묘(癸卯)

갑진(甲辰)

을사(乙巳) 3월